

출장 보고서
2025. 9. 7. ~ 9. 13.
핀란드 헬싱키

## 핀란드 경제교육 사례 조사

2025. 10. 2. (목)

송 인 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박 진 채 교육기획팀장  
조 선 영 학교경제교육팀장

# I. 출장 개요

## 1. 목적

- 핀란드 중앙은행, 국가법률지원청(The National Legal Services Agency) 등 경제교육 전문 기관의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경제교육 사례 조사 및 우리나라 경제교육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이해력의 중요성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핀란드는 전통적인 교육 강국으로, 경제교육을 학교의 핵심 교육 내용 중 하나로 간주하여 범교과 학습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한 체험형 경제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출장을 통해 핀란드의 경제교육 동향과 추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한국과 핀란드의 경제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교육 수요자의 경제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개발,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자 함.

## 2.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5. 9. 7.(일) ~ 2025. 9. 13.(토)
- 장소: 핀란드 헬싱키

## 3.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장자: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외 2인

순번	이름	소속	직위
1	송인호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
2	박진채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교육기획팀	팀장
3	조선영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기획운영실 학교경제교육팀	팀장

□ 출장 일정

일자	시간		일정
9월 7일(일)	KST	11:05	인천국제공항 출발
	UST	18:15	프랑크푸르트(경유지) 도착
9월 8일(월)	UST	11:30~14:55	프랑크푸르트 → 헬싱키 도착
		17:00~19:30	핀란드 경제교육 현황 공유
9월 9일(화)	UST	15:00~18:00	가정 방문 세미나
9월 10일(수)	UST	9:00~10:30	핀란드 교육기관(타피올라 고등학교, Tapiolan lukio) 방문
		10:30~12:00	교사 및 학생 인터뷰
		14:00~16:00	핀란드 민간 경제교육기관(Yrityskylä) 담당자 면담 및 경제교육 프로그램 모의 체험
9월 11일(목)	UST	10:00~12:00	핀란드 중앙은행(Bank of Finland) 자료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12:00~14:00	금융교육 국가전략 책임자 면담
9월 12일(금)	UST	18:25~19:50	헬싱키 공항 → 암스테르담(경유지) 도착
		21:30	암스테르담 출발
9월 13일(토)	KST	16:40	인천국제공항 도착

## II. 주요 사항

### 1. 핀란드 경제교육

- 핀란드의 경제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제와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중등학교에서는 사회 교과에 경제가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심화 과정을 선택하여 금융 투자, 창업(기업가 정신) 등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음.
  - Yrityskylä와 같은 민간 주도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학교급에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한 가게, 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체험해 볼 수 있음.
  -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직업 체험 프로그램(TET, Työelämään tutustuminen),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직접 경험함.
- 핀란드 중앙은행과 법무부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2. 가정 방문

- 핀란드의 일반 가정을 방문해 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경제 수업, 현장 학습, 직업 체험 프로그램(TET) 등 경제교육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학생과 학부모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며, Yrityskylä와 같은 체험형 학습 공간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
  - 특히, 학교, 지역사회, 직업 체험을 긴밀히 연계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 준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핀란드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TET)을 운영한다는

점이며,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부터 다양한 직업 경험을 쌓고 있었음.

- 7학년과 8학년은 하루씩, 9학년은 2주간 직업 체험 프로그램(TET)에 참여하고, 카페, 초등학교 보조교사, 기업 현장 등 다양한 직종에서 체험이 이루어졌음.
- 학생 스스로 원하는 직업군을 선택하고 직접 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면접에 통과해 일자리를 구해야 하며, 부모나 교사는 학생에게 조언해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
- 직업 체험 프로그램(TET)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은 15세 이상이 되면 위생시험과 같은 자격증을 응시·취득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함.

□ 고등학교 시기에는 대학과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와 심화 학습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관심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며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 < 가정방문 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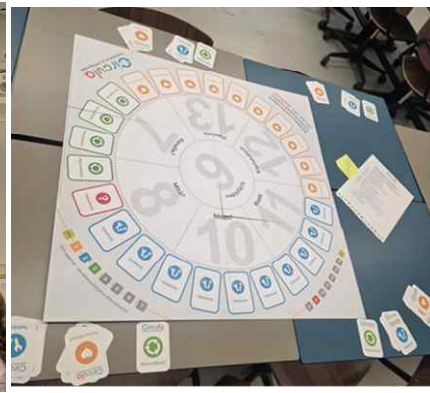


### 3. 타피올라(Tapiolan lukio) 고등학교

#### 가. 경제 수업

- 핀란드 교과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개념과 목표를 기반으로 하되, 각 학교가 지역 교육과정을 정해 세부 과목과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 핀란드의 일반 상급중등교육은 2~4년 정도 소요되며, 학생들은 최소 150학점(credits)을 이수해야 졸업 요건을 충족함.
  - 과목들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핀란드 에스포 지역의 타피올라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공통 <경제> 과목의 수업을 참관함.
  - 공통 <경제> 과목은 사회과 과목의 하나로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필수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심화 <경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심화 <경제>는 교사가 재량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음.
  - 교사 강의와 학생 활동이 결합된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교과 내용 중심으로 실제 사례 적용, 모둠 활동이 병행되었음.
    - 창업 활동은 내신 평가에 반영되는 모둠 활동으로, 조별 점수와 개인의 기여도를 연계해 학생들이 협력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
  - 교사가 교수법, 수업 자료 선택에 상당한 자율권을 가지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과제 및 평가를 시행하는 등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타피올라 고등학교 경제 수업 현장과 교과서 >



나. 교사와 학생 인터뷰

- 타피올라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경제 수업 경험과 심화 과목 선택 동기, 특강, 진로 준비 과정 등을 공유함.
  -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창업 게임과 같은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 대학 입시 제도 개편으로 사회·경제 과목의 반영 비중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경제> 선택이 증가하고 있었음.
- 경제 수업에서 창업자, 정치인, 외교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며, 교사는 시사 이슈와 현장 체험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있었음.

- 유럽의회 의원, 외교부 장관, 기업 창업자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 단, 전문가 초청은 담당 교사가 직접 섭외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 교사는 시사 이슈를 활용해 학생들의 토론을 유도하며 교과서 지식을 실사례와 연결하며 학습 동기를 강화

□ 학생들은 창업 게임과 투자 모의실험을 비롯한 조별 활동을 통해 협업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으며, 시험은 논술·에세이 형식으로 출제되어 수업 참여와 응용력이 성취도의 핵심 기준이 됨.

□ 핀란드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추가 학습자료 이용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학교 수업만으로도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구조였음.

- 의대 지망생을 위한 고액 코스가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저비용 또는 무상 코스를 이용하였고 사교육은 학생 개인의 선택 사항에 해당함.

□ 학습자 중심 수업과 현장 체험, 전문가 초청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흥미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대학 진학이 가능한 공교육 체제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현장 체험 중심의 수업 운영은 학습자 주도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촉진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이 보장되는 구조가 핀란드 교육의 핵심

- 시험과 수업 활동이 긴밀히 연계되어 학습 성취의 신뢰도를 높임.

#### < 인터뷰 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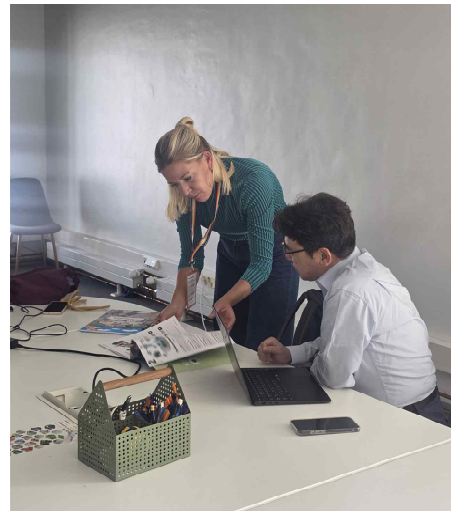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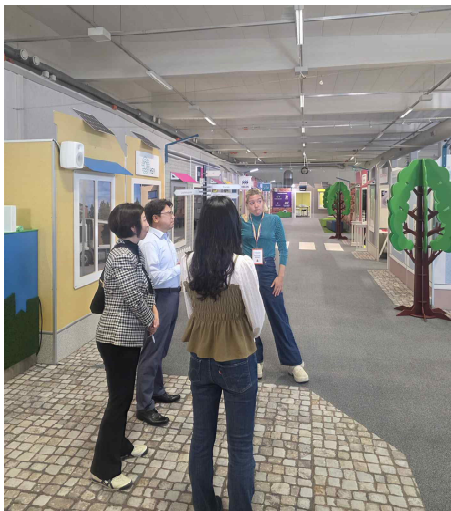


## 4. 민간 경제교육기관 Yrityskylä

### 가. Yrityskylä

- Yrityskylä는 핀란드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 기반 경제교육 프로그램이자 학습 공간으로, 핀란드형 경제교육의 대표 모델임.
  - ‘기업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경제시스템을 축소한 공간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경제주체로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학교가 협력하여 구축
  - 학생들은 하루 동안 자신이 맡은 직업을 수행하고 임금을 받아 소비·저축·세금 납부 등 경제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학습자 스스로 경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임.

#### < Yrityskylä의 학습 공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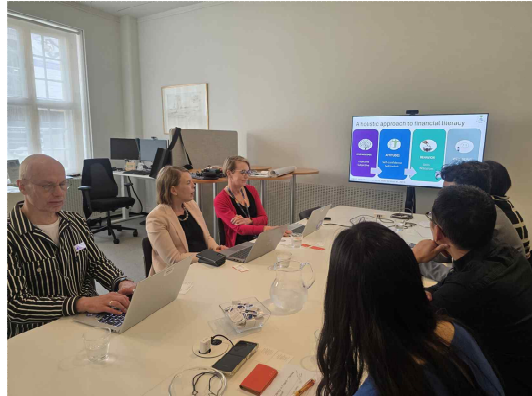
- Yrityskylä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의 사전 교육과 현장 체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자가 지식을 경험을 통해 내면화하도록 돕는 특징을 지님.
  - 학교에서의 사전 교육: 교사가 기초 경제 개념(노동시장, 세금, 기업의 역할)에 관한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직업의 우선순위를 전하고 관련 학습지를 통해 활동을 준비함.

- 현장 체험 활동: 실제 ‘마을’ 공간에서 하루 동안 직장(민간, 공공 모두 포함)에서 일하여 얻은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소비와 저축 등 경제주체로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경험함.
- Yrityskylä는 은행, 슈퍼마켓, 병원, 언론사, 지방정부, 학교, 보험사 등 20~25개의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작은 도시 형태의 학습 공간임.
  - 각 기관은 실제 기업이나 기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은 해당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유사하게 체험할 수 있음.
    - 직업별 목표와 업무 지침이 학생들의 개인 태블릿에 제시되고 학생들은 해당 과업을 스스로 수행해야 함.
  - 학생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학습하고 책임감,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음.

## 5. 핀란드 중앙은행(Bank of Finland)

- 핀란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은 국민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폐박물관을 운영하고 교육 자료 제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중앙은행은 학교 및 교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정책 체험과 자료 지원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전문가 강연, 금리 결정 모의체험, 온라인 자료 제공 등으로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경제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앙은행 화폐박물관(Rahamuseo)은 경제·금융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되며, 역사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돕고 있음.
    - 통화 역사, 유로 도입 과정, 중앙은행 기능, 위조 방지 기술 등에 관한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고, 학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교사를 동반한 학급 단위의 방문객이 많음.

< 핀란드 중앙은행 방문 >



## 6. 금융교육 국가전략 책임자 면담

- 핀란드 법무부는 금융교육을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추진하며,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금융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실제 금융소비자로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며, 금융교육 국가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조정함.
- 금융교육 국가전략은 단계별 금융소비자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학교 교육과 사회 전반에 금융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초등 단계에서는 저축과 소비의 기초 개념을 강조하고, 중등 단계에서는 금융 의사결정, 신용과 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 이해를 포함하고 있음.
  - 성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장기적 재정 계획과 금융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전략을 실행하며, 국가 차원의 범사회적 연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은 금융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학교는 교과과정 내 금융교육을 담당하며, 시민단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금융교육 전략은 국제 협력과 비교 연구를 통해 보완되며, OECD 금융소비자역량 프레임워크와 연계한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채택함.
  - OECD 금융교육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방향을 조정하고, 유럽연합의 금융교육 지침과도 연계하여 금융교육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함.

### Ⅲ. 시사점

- 핀란드 경제교육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한국 경제교육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 교육부·중앙은행·금융감독청·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범사회적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교육을 단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
- 체험과 참여 중심의 학습은 학생들의 경제적 이해와 진로 탐색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적 방법임.
  - Yrityskylä와 같은 경제 체험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TET)은 학생 주도적 참여와 실질적 경험을 확장하는데 기여함.
  - 한국에서도 권역별 체험센터를 설립하고 학교 경제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계(경제교육 체험 주간 도입)하여 학습자가 실제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공 주도의 경제교육 인프라 확충은 교육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함.
  - 중앙은행과 공공기관은 화폐박물관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
  - 이는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전국적 학습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임.
-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경제교육 현장 지원은 경제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 조건임.
  - 경제·금융 교사 연수 표준과정과 마이크로 자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수업 설계 자료와 디지털 도구를 현장에 제공해야 함.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과 교육 성과 향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